

조상육대를 이용한 종균접종방법의 생력화

지상덕, 남성희, 조세연

농업과학기술원 임사곤충부

기존 조상육 상태에서 직접 종균을 접종할 경우 감자율이 높고 감염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동충하초 접종시 5령기잠 누에를 접종실로 옮겨 접종하는 관계로 접종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큰누에 사육실의 조상육대상에서 4면직전에 똥갈이를 한다음 5령기잠때 직접 접종한 결과 감염율, 감자율이 기존의 접종실로 옮겨 접종하는것과 큰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큰누에사육실의 온도 조절을 위한 온풍기를 보유한 농가로서 누에사육기술이 우수하여 5령기잠 접종시 누에가 동시에 깨어 나오게 할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접종방법에 대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4면처리직전 똥갈이를 실시하고 잎뽕육으로 면처리 작업을 한다음 5령기잠 누에가 80-90%될 때 조상육대에서 종균을 접종한후 온도를 26~ 30°C로 조절하고 비닐로 밀폐시켜 누에자리 습도가 95%이상되게 관리하고 8-9시간후 누에가 모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한후 2차 재접종을 실시 한다음 최초 접종 시간으로부터 24시간가량 경과후 정상적으로 급상하며 누에사육을 하도록 한다.

이로인해 접종시 누에를 접종실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이 전혀 투여되지 않아 접종노동력이 80%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